

## 생태영농탐방

## 생태산촌 시범마을 으랏차차! 명달리!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2005년 11월 12일 생태산촌만들기모임에서 주최하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아름마을 가꾸기, 산촌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여하였다. 명달리는 1,200ha의 면적에 약 1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산촌지역이다. 명달리 면적은 다른 마을보다

넓으며, 사방이 산이고 농토(86.9ha)가 적은 관계로 주로 산을 이용하여 벼섯과 잣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약70호가 정도가 살고 있으며, 이 중 20호가 정도는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50호 정도가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형 마을이다. 명달리는 가평군 청평과 강원도 홍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있

며, 통방산, 중미산, 유명산 줄기에 있는 산속 해발 660m 정도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양평 시내에서는 약40km 떨어져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생명의 숲 국민운동 유영민국장은 서울로 통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전에서는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양평군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허리에 끼고 높은 산과 어우러져 있는 계곡으로 그 자체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이자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그 만큼 양평군은 일찍부터 “맑은 물 사랑 친환경 농업”이란 구호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친환경 농업의 선두주자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양평군 역시 우리나라가 최근 40여 년 간 지속적인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왔고, 그 중심에는 수도권의 비대화란 물결 속에 흘러들었다. 그 결과 국토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반환경적인 개발을 동시에 이루어 졌다. 그 속에서 양평군의 개발의 수요는 증대되었고, 반대로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산촌에 있는 계곡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또한 수도권 주민의 휴식처로서 양평군의 가치는 증대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의 협력을 바탕으로 명달리 생태산촌마을이 탄생되었다. 명달리 생태산촌 시범마을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5월부터 2001년5월까지 실시된 “양평산림비전21” 수립 용역 추진과정에서 명달리를 녹색관광을 테마로 하는 생태산촌 시범마을로 조

성 할 것을 제안 하였고, 지역주민과 양평군 그리고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은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명달리를 생태산촌으로 조성 하는 것에 큰 합의를 보았다고 하였다. 2001년 9월 명달리 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서종면 생태산촌추진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명달리 생태산촌 조성 계획이 하나씩 추진되어 가시화되었다. 양평군 후원으로 명달리 생태 산촌 조성 사업 기본 계획 및 설계 (2001.07.27-2002.02.25)가 이루어져 명달리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제시되었다. 그리고 명달리 생태산촌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명달리 지역주민들과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양평군은 정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대상지역으로 확정(2001.12)되었고, 환경부의 자연생태보존우수마을 지역으로 선정(2002.02)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2002.02)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정보화시범마을(2002.06)로 선정되었으며,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산촌개발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2,530백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교육센터 등7종, 오수처리시설 등8종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현재 명달리에 갖추어진 기반시설은 생태산촌환경교육센터(교육강당 등), 마을정보센터, 공동숙소(50인수용), 마을회관, 등산로, 숲체험로(산책로), 임도, 오수처리시설(3곳), 야외화장실(3세트) 등이 갖추어져 도시민이 이용 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기반시설이 되었으며, 친환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생태산촌 환경교육센터는 주민



## 생태영농탐방

복지센터, 산촌체험센터, 환경교육센터, 컨벤션센터라는 크게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명달리 생태산촌 환경교육센터 자리는 원래 서중초등학교 명달분교였으나, 2000년에 폐교되어 방치되었던 것으로 명달리 주민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정부지원사업(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유치하여 지금의 생태산촌환경교육센터로 리모델링 하여 교육관, 후생관, 야생화 정원, 잔디광장, 야외교실,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활용40명, 야외활용100명 내외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생태산촌환경교육센터내에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시범마을을 유치하여 마을주민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산물의 온라인 판



매망을 구축하고, 마을을 홍보 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마을 정보센터 내에는 컴퓨터 10대, 복사기, 프린터, 빔프로젝트,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이 비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생태산촌환경교육센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공동숙소가 있는데 대지 300평에 건평60평, 건물2동에 방4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실, 샤워실, 썬크데가 설치되어 약40~50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마을회관은 마을주민이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의 마을지원사업으로 건설되어 마을주민의 공동행사, 회의, 노인경로당, 캠프 학생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지200평, 연면적 50평의 2층 건물로 방4,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정원, 정자,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등산로에는 중미산, 통방산을 중심으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사철 등산객이 내방하고 있으며, 처음 찾는 등산객을 위하여 마을입구에 등산로를 찾지 못해 헤메지 않도록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게 하여 마을주민들의 세심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고려하여 오폐수시설을 설치하여 다른 농촌마을과 차별성을 두었으며, 야외화장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명달리의 특산물은 산촌의 특성상 특산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일부 품목은 자가 소비용으로 생산하지만 친환경 무농약 우렁이쌀, 표고버섯과 표고버섯가루, 잣, 산더덕, 도라지, 산채, 한봉꿀, 도토리가루 등이며 특히 친환경 무농약 우렁이 쌀은 안전한 먹거리와 상수원 보호로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현재 양평군에 의해 권장 받는 친환경 농업



△ 마을정보센터

△ 준공식

이다.

끝으로 명달리의 발전 가능성과 위기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장점으로서는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이다. 주민 조직으로는 영농조합법인, 개발위원회, 정보화시범마을추진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등이 있으며, 특히 영농조합법인은 명달리 생태산촌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주민 공동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하여 현재 마을 주민 40여명이 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지원사업(아름마을사업, 산촌개발사업)주관, 센터운영 관리, 장뇌삼단지 관리운영, 체험프로그램운영 등을 있으며, 참여하는 주민은 일정한 조합비를 납부하여 마을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조례(정관)를 만들어 놓고 있다. 또한 잘 갖추어진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인접성, 친환경 농업실천 등이 주5일제와 여가, 건강식을 찾는 웰빙 등과 더불어 정부지원이 기획의 요소라면 위기의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우선 부채지주들이 늘고 토지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외지인

의 주말별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을주민스스로의 기획, 운영, 프로그램 부족 등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외부로부터 계속되는 환경파괴는 결국 잘 갖추어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며, 최대의 위협요인이다. 결국 명달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스스로의 운영능력을 높이고, 외부의 간섭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로 보았다. 외부의 간섭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 결과에 집착하여 빠른 성과를 기대 한다든지, 외부의 돈이 투입되어 부채지주를 늘리거나 무분별한 전원별장을 신축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자생능력을 키워 소득을 높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주민의 합의와 의지를 모으고, 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부여된다면 앞으로도 명달리는 생태산촌시범마을로 유지될 것이다.